

대행 스님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단계의 공부 과정

질문 타 사찰에서 참선을 하다가 우연히 대행 스님의 법문을 접하면서 관하는 도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대행 스님의 세 단계의 공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명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답변 지금 시쳇말로 공부하는 과정을 시로 한마디 읊겠습니다.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같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여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불이 진동하여
이름 없는 이름이
그대로 여여하더라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말도 아니요, 누가 지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살핌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한 티끌만도 못하고 깨알쪽만도 못한데…, 다 실은 뜻입니다.

지금 읊은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첫 번에,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놔라. 맡겨 놔라. 이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해야 됩니다. 편안해졌을 때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대답해 봐!', '당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것이 공부라면 이것은 영 발전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이만하면 족한 것을….' 한다면 그걸로써 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공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내 대답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앞서의 그 습을 다 놨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일 단계는 다 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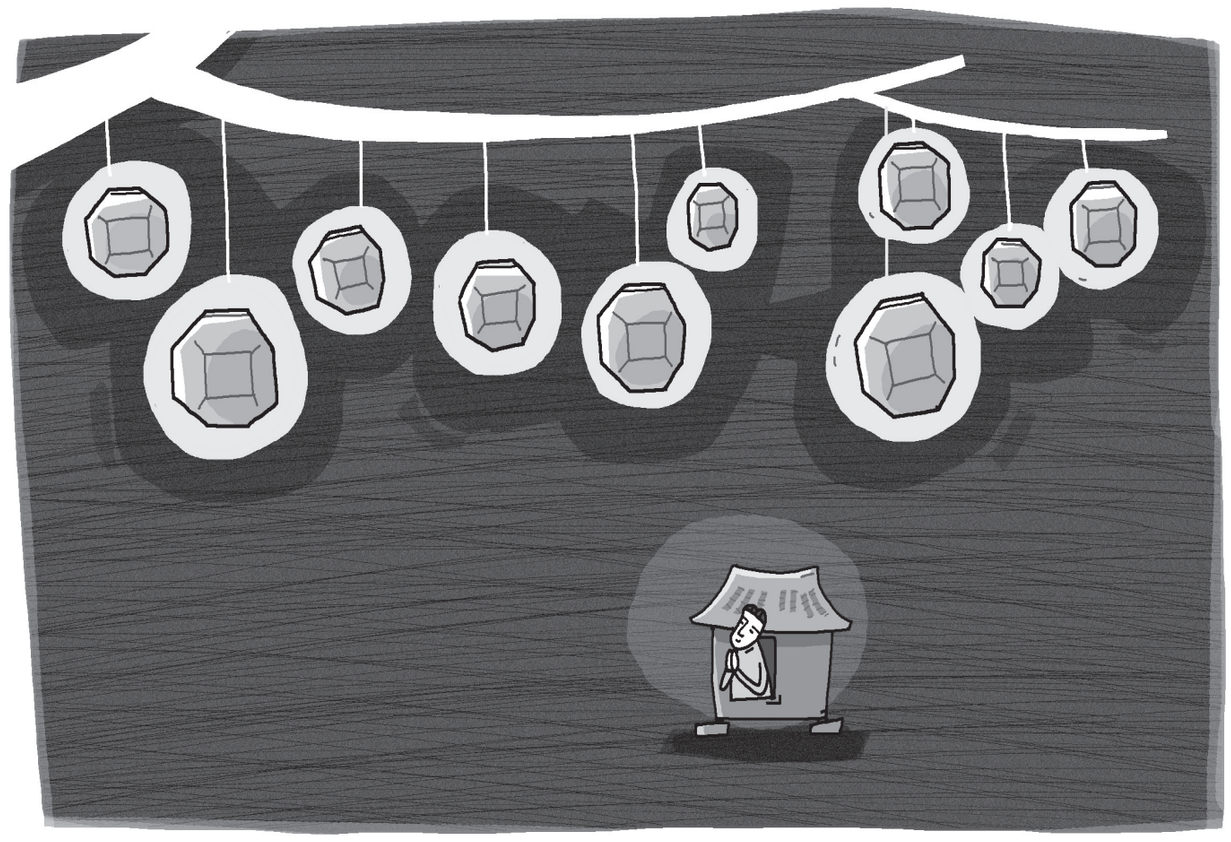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다음에 발견해 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체험하고 실험을 통해서 생활에 조금도 걸림 없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시 보임을 하면서 다시 굴리면서, 안으로만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남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볼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 잘된 것을 말할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바보가 아니냐?" 이러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나와 남이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두루 같이'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모든 게 두루, "두루 같이 죽은 이름이여." 했습니다.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면서 체험하면서, 남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이 안으로 굴려서 안에다 놓고 말을 하면서, 안에다 놓으면서 말을 했어도 말을 한 사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발견했어도 만약에 그 습이 앞을 가린다면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다면 그 '깨달았다'는 거기에서 그만 더 진전을 못 하고, 더 계발을 못 하고, 두루 물리가 터지지 못한 채 그냥 멈춰 버리고 말고 미해집니다.

해산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떻게 어른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이 십육 년 동안을 그렇게, 깨달아서 바리때를 이어받아 가지고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달마 대사 역시 면벽을 했고요. 깨달았어도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같이 두루 나투는 방법을,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아주 정열적으로 확고히 알려고 했던 거죠.

생활이 불법이자 진리이자 과학이기도 합니다. 안에서 생각했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니깐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도 내가 '나'라는 게 없는 공부가 바로 진짜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승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죠. 자기는 시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 가르치는 자기로서, 자기는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놔야 하고 자기는 바로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는 역시 각오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앞서 그 "같이 나투고 두루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돈오나 점수나 물 흐르는 데 붙지 않듯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질문 사월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초파일 행사에 동참하면서도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그 뜻을 깊이 새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가르침을 깊이 통찰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뜻깊게 보내고 싶습니다. 올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몸을 나투시어 저희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고자 하셨던 참뜻을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침 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던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왔던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 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 없다면 하루를 일 초로 축소할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우리 마음과 말과 뜻을 한 번 더 다져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법회를 하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부들과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법회 장소를 메웠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법회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 20면으로 계속

'2代' 이은 연등 제작
승강장치 시공 전문기업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010-9446-1862
031)768-7270, 7271
찬덕불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공장 직영 생산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보장합니다



